

제 208호 · 2013년 6월 12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임진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PSAI 푸조우 터미널 지분 취득
2. 청도항, 홍콩증권거래소에 3억달러 IPO 예정
3. 나미비아 월비스베이, 남아프리카 물류허브로 입지 굳혀
4. 미국 로스엔젤레스항, 항만 인프라 확충에 4억 달러 예산 책정

물류시장동향

1. ART, 신규 Sea-Rail 서비스 시작
2. 이탈리아 피오비노항, 준설 프로젝트 계약자 모집 중

공지사항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PSAI 푸조우 터미널 지분 취득

- 글로벌 항만운영사인 PSAI는 Fujian Jiangyin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FJCT)의 지분 취득
 - 이로서 PSAI는 FPG(Fuzhou Port Group) 다음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
 - FJCT는 667m의 안벽, 세대의 포스트파나막스급 안벽크레인(아웃리치 23열) 및 수심 17.5m의 대수심 항만임
- FJCT는 푸조우항만그룹(FPG)과의 세 번째 합작법인으로
 - 현재 PSAI가 투자하고 있는 곳은 Fuzhou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FICT)과 Fuzhou Qingzhou Container Terminal(FQCT)임
 - PSA의 관계자의 의하면 항만관리와 터미널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
- PSAI는 푸조우항만에서 FQCT, FICT 및 FJCT의 총 8개 선석을 운영
- 탄충멩(Tan Chong Meng) PSA CEO는 "나는 푸조 항만 그룹에 감사한다. 지난 15년간 PSA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PSA와 푸조우 항만 공사는 푸조우 항만의 주요한 성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함
 - PSA의 북동아시아 지역담당 CEO는 "PSA와 FPG는 푸조우 항만이 주요한 컨테이너 허브항만으로의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배후단지 투자 및 산업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함

< FJCT 터미널 전경 >



자료 : www.portstrategy.com

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3.6.1.

김우선 전문연구원 (☎ 02-2105-2889, firstkim@kmi.re.kr)

□ 청도항, 홍콩증권거래소에 3억달러 IPO 예정

-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 기준 세계 7번째 항만인 청도항은 2~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상반기 홍콩증권거래소에 IPO 추진 예정
 - 청도항 항무그룹(Qingdao Port Group, QPG)은 2008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이후 처음으로 재시도 하는 것임
- 최근 Wallstreet Journal에 따르면 QPG는 BOC(Bank of China) International, Citic Securities International 및 UBS를 인수업자(Underwriter)로 하여 IPO를 진행할 예정임
- QPG는 최근 몇 년 동안 지분 인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음
 - QPG는 항만뿐만 아니라 상업 선박 및 철도 운영도 병행하고 있으며, 상업적 자산과 보호 자산을 구분하고 운영하고 있음
- QPG 회장인 Chang Dechuan은 지난 3월 QPG는 현재까지도 국유기업이며, 청도항은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중국의 주요 항만이라 밝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시사함
 - 6월 초 QPG는 Cosco Pacific, 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CMHI) 및 IMC 그룹과 Dongjiakou 철강 터미널의 개발 및 운영을 시작함
 - 총 투자규모는 620백만달러이며, QPG가 30%, Cosco Pacific 및 CMHI가 각각 25%, IMC가 나머지 20%의 지분을 보유함
- 40만 톤급 철광석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Dongjiakou 터미널은 3월에 중국 정부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 Valemax가 기항할 예정으로 있음
 - Valemax의 경우 중국에 기항에 제약이 있어 인근 동남아 지역에서 FTS(Floating Transshipment Station)을 두고 피더 운송을 통해 중국에 철광석을 공급하였으나, Dongjiakou 터미널 개발에 따라 직접 기항이 가능해짐
 - Dongjiakou 터미널에는 20만톤 철광석 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중국항만의 경우 민영화 및 IPO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신규 부두 확충 및 해외 터미널 지분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항만의 이러한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는 우리 항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www.lloydlist.com, 2013.6.5.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나미비아 월비스베이, 남아프리카 물류허브로 입지 굳혀

- 나미비아 월비스베이(Walvis Bay)항에서 월비스베이 회랑(Walvis Bay corridors)을 통해 수송되는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월비스베이는 남아프리카 물류허브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
 - 월비스베이항과 월비스베이 회랑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¹⁾와 유럽, 미국 및 극동 지역 간 무역에서 전략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월비스베이 회랑을 통해 수송된 물동량은 682,333톤으로 2011년 대비 54.3% 증가함
 - 월비스베이 회랑을 구성하고 있는 Trans-Kalahari Corridor²⁾, Trans-Caprivi Corridor³⁾ 및 Trans-Cunene Corridor⁴⁾를 통해 수송된 물동량은 각각 115%, 75%와 29% 증가함

< 월비스베이 회랑 >



자료 : Annual Review 2011, Walvis Bay Corridor Group.

- 월비스베이항은 나미비아 최대의 상업항이며, 중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의 지역허브임
 - 깊은 수심(최대 수심 12.8m)과 안정적인 기상조건을 갖춘 월비스베이항은 나미비아 해안선의 중간에 위치하며, 주요 해운항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
 -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 지역항로이고 이로 인해 다른 항로에 비해

1) 남아프리카 국가의 사회경제적 협력 및 통합을 위해 결성된 범국가적 조직으로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등 1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2) Trans-Kalahari Corridor는 월비스베이항에서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로 연결되는 운송루트임.

3) Trans-Caprivi Corridor는 월비스베이항에서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로 연결되는 운송루트임.

4) Trans-Cunene Corridor는 월비스베이항에서 앙골라 남부의 루방구(Lubango)까지 연결되는 운송루트임.

화물 운송비용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작업에는 24시간이 소요되며, 항만에서 역내 목적지까지 운송시간은 2일에서 5일로 경쟁항만들이 약 14일 소요되는 것이 비해 짧음
 - 주요 수출화물은 소금, 망간 광석, 형석, 생선, 대리석/화강암 및 컨테이너 화물이며, 주요 수입 화물은 석탄, 석유제품, 곡물, 어분, 설탕, 해양석유, 산업 원자재, 장비 및 컨테이너 화물임
 - 월비스베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2년 37,185TEU에서 2010년 220,178TEU로 482% 급증함
- 나미비아는 물류허브 개발을 4차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 4)의 우선과제로 명시
- 그에 따라 월비스베이항을 통과하는 월비스베이 회랑을 남아프리카¹⁾의 주요 통상항로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나미비아 항만공사(Namibian Ports Authority, Namport)는 2020년까지 월비스베이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100만 TEU로 증가하기 위해 항만시설에만 2,688만 달러를 이미 투자함
 - 2012년 5월 Namport는 날로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및 기타 화물을 분산시키기 위해 월비스베이 신항 건설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정부가 편딩에 관심을 보였음
 - 그밖에 나미비아의 물류허브 입지를 더욱 다지기 위해 향후 월비스베이항을 중심으로 통합 인프라시설 구축이 추진될 계획임

자료 : www.dredgingtoday.com, 2013.5.27. / www.businessmonitor.com, 2013.6.7. / www.npc.gov.na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5) 남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개발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으며 구리, 석탄 등 지하자원의 수출을 기반으로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등 국가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어 그에 따라 점차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물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 미국 로스엔젤레스항, 항만 인프라 확충에 4억 달러 예산 책정

- 로스엔젤레스항은 차기 회계연도에 터미널 자동화 및 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항만 인프라 사업에 4억 달러 투입 예정
 - 로스엔젤레스 항만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
 - 이 중 37%에 달하는 4억 달러를 LA항 역사상 가장 큰 항만 개선사업에 투입하기로 함
- 특히 3억 8,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컨테이너 터미널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
 - 트라팩 컨테이너 터미널 장래 터미널 자동화 및 부두 내 철송 능력 확보를 위한 배후지 개발에 9,900만 달러 투입
 - 4,150만 달러가 차이나 쉬핑 터미널 건설에 사용될 것임
 - 9,600만 달러는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 시 선박 자체의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대신 부두에서 선박으로 전기공급을 가능케 하는 발전소 건설에 투입 예정
 - 8,200만 달러는 액체벌크화물 처리시설을 개선에 사용될 것임
 - APL 터미널의 배후지와 안벽건설, 에버그린 터미널의 장비 및 안벽개선, APMT 터미널의 포장교체 등 기타 항만시설 개선에는 1,500만 달러 배정
 - 7,900만 달러는 로스엔젤레스항 200번 선석의 조차장 건설에 사용될 것임
 - 3,320만 달러는 월밍톤 친수시설 사업체들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도로시설 건설에 투입 예정
 - 8백 8십만 달러는 기타 운송시설 사업에 사용될 것임
 - 또한 870만 달러는 항만 전반에 걸친 보안정보시스템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섬유 사업에 배정되었음
- LA 항만당국은 이번 예산안 채택으로 로스엔젤레스항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격화되는 항만 간 경쟁 속에서 여전히 경쟁력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항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3.6.10.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ART, 신규 Sea-Rail 서비스 시작

- ART Logistics는 동남아시아를 중앙아시아와 연결하는 복합 서비스를 계획 중
 - 이 서비스를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중앙아시아와 연결하게 됨
 - 자카르타, 포트켈랑, 방콕, 하이퐁, 지룽, 싱가포르 항로로 화물을 해상 운송한 후, 중국 교통회랑을 통해 철도로 중국 북동쪽의 렌윈강에서부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까지 육상 운송함
 - ART는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중앙아시아로 운송되는 화물로는 건조식품 및 통조림 등의 일반화물을 포함하여 석유와 가스 산업을 위한 프로젝트 화물도 있음

자료 : www.worldcargonews.com, 2013.6.4.

박한나 연구원 (☎ 02-2105-2914, hnp@kmi.re.kr)

□ 이탈리아 피움비노항, 준설 프로젝트 계약자 모집 중

- 이탈리아 항만청은 피움비노항(Port of Piombino) 준설 프로젝트 계약자를 모집 중
 - 본 프로젝트는 방파제 건설 및 방파제 확장 작업과 부두 확장작업으로 구성
 - 또한 진입 항로와 선착장 입구를 최대 20m 깊이로 준설하는 것이 포함됨
 - 본 프로젝트 기간은 건설공사 계약일로부터 360일이며, 입찰 마감일은 2013년 6월 17일 임

< 이탈리아 피움비노항 위치 >



자료 : www.dredgingtoday.com, 2013.6.7.

< 피움비노항 전경 >



자료 : www.dredgingtoday.com, 2013.6.7.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 국내 및 해외의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타당성 조사분석 수행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현지시장 개척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사업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 내용

-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국고보조금 + 자부담 matching)

조사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비율(최대)	70%	60%	50%	1억원

< 지원 예시 >

- 타당성 조사비용이 5천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9천만원 : 최대 5천4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1억6천만원 : 최대 8천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2억2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실제로 교부되는 보조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2. 6. 7(금) 09:00 ~ 7. 8(월)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첨부 1>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첨부 2>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첨부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이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회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3년 7월20일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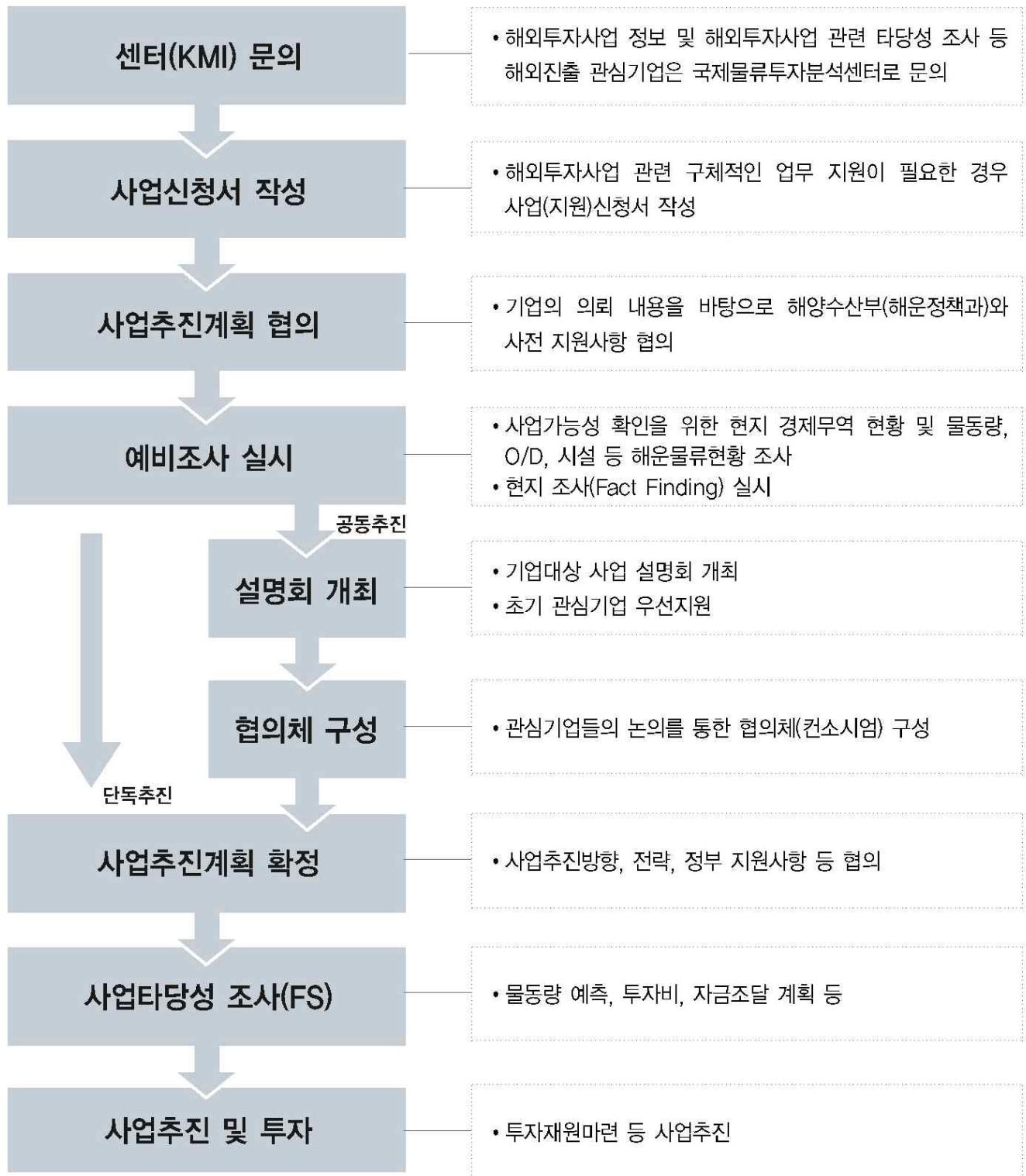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